

# 오미크론 확산에 지난달 국내선 5% ↓ ...인천공항 123% ↑

### 지난달 국내 14개 공항 494만명...5.3% 감소

### 제주 -3.2%, 김포 -5.8%, 김해 -10.6% 줄어

감잡을 수 없이 확산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지난달 연일 증가하던 국내공항의 이용객 수도 5%가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공항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김포와 제주, 김해 등 전국 14개 공항(인천공항 제외)의 국내선 이용객은 493만918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521만5847명과 비교해 -5.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공항이 192만9749명으로 전년같은기간 199만3098명과 비교해 -3.2%가 감소했다. 이어 김포공항 168만8921명(전년대비 -5.8%), 김해공항 64만129명(-10.6%)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주공항의 이용객은 20만6987명으로 전년대비 13.4%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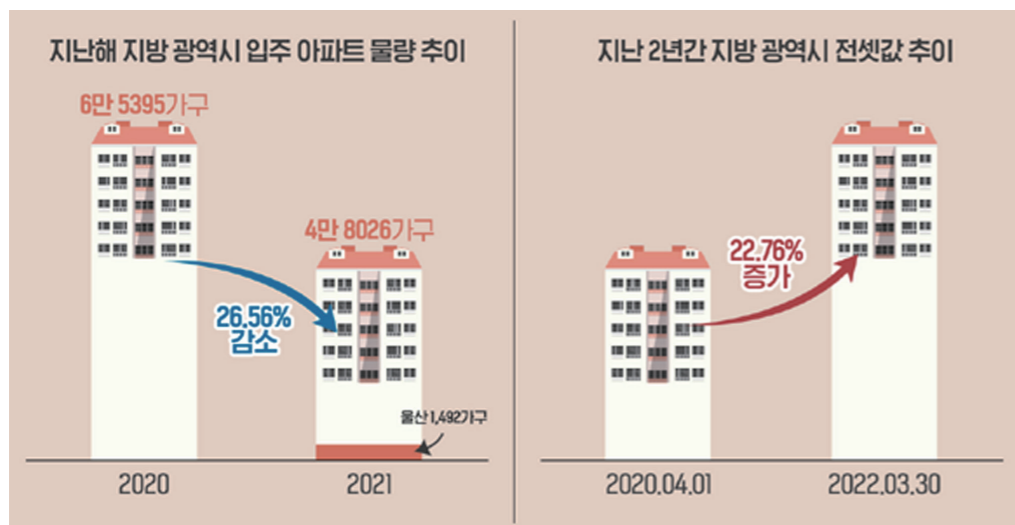
이 같은 감소는 오미크론의 확산이 지난달 17일 62만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가 정점을 겪으면서 국내여행객의 수요도 감소한 것으로 항공업계는 분석했다. 국내 항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정점에 달했던 오미크론 확산의 여파로 국내여행을 계획했던 승객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방역당국이 지난달 21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7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제되면서 향후 국내선보다는 국제선의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선이 집중된 인천국제공항은 정부의 자가격리 면제 등으로 인해 지난달 이용객수

는 전년 같은 기간 18만3902명보다 123.3% 급증한 41만706명으로 집계됐다. 여행업계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여름 휴가철인 올 3분기로 전망했다. 이는 여행객 수요에 비해 항공기 등의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의 국제선 완화조치가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난 6일 코로나19로 감소했던 국제선 운항 규모를 올 연말 50%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축소된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총 3단계로 나눠 내달부터 국제선 정기편을 매일 주 100회씩 증편하고 인천공항의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횟수)을 1단계 20대, 2단계 30대로 단계별 10대씩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천공항에 집중된 세관·출입국·검역 인력도 지방공항으로 재배치해서 내달 무안·청주·제주공항, 6월 김포·양양공항 순으



로 국제선 운영 재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자가격리 면제가 시행되면서 국내여행객들의 해외여행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며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올 3분기부터는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 넓은 아파트, 오른 전셋값...새집 목마른 지방광역시



5대 광역시 아파트 2채 중 1채 이상이 20년 넘은 노후 아파트로 조사됐다. 여기에 2년간 전셋값까지 급등하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갈증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 5대 광역시에 공급된 아파트는 모두 253만9721가구로, 이 중 133만6808가구(52.64%)가 평균 20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57.33%로 노후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았다. 광주 54.33%, 부산 52.30% 등이 뒤를 이었다. 울산은 49.93%로 절반 이하였지만 동구(62.62%)와 남구(61.19%) 등은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난해 입주 물량이 부족한 것도 한 몫 했다. 지난해 5대 광역시에서 입주한 아파트는 4만 8026채로 전년 6만5393가구 대비 26.56% 감소했다. 특히 울산은 지난해 입주 물량이 1492가구로 가장 적었다. 전셋값 상승으로 새 아파트 갈증은 더욱 심

화됐다. 지난 2년간(2020년 4월1일~2022년 3월31일) 지방광역시 전셋값은 22.76% 상승했다. 특히 부산 강서구(48.24%), 대전 서구(38.26%) 등은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신규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광주 북구에 분양된 '첨단 프라이빗 서비스스타일스'는 평균 50.97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울산 남구에서는 '삼호비스타동원' 아파트가 14.18대 1의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이달에는 대우건설이 울산 남구에 '문수로 푸르지오 어반피스'를 선보인다. 12일 해당지역, 13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을 받는다. 계룡 건설은 오는 19일 대전 동구에 '더더시티 5블록' 해당지역 1순위 청약을 받고, 20일에는 대덕구 '엘리트 송촌 더 파크' 해당지역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진데다 전셋값까지 상승하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수요자가 지속적으로 늘었다"며 "지난해 입주 물량도 적어 새 아파트 갈증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소할 신규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 현대차, 코나 신형 출시...2144만원부터



현대자동차가 12일 코나의 연식 변경 모델 '2022 코나'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 2022 코나는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 주 고객층이 선호하는 선택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화해 상품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기본 트림인 스마트에 ▲버튼시동&스마트키 ▲스마트키 원격시동 ▲인조 가죽 시트 ▲앞좌석 열선시트 ▲가죽 스티어링 휠(열선포함) ▲가죽 변속기 노브 ▲전방 주차거리 경고 ▲메탈페인트 인사이드 도어핸들이 포함된 베이직 패키지와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모니터(조향 연동) ▲폰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 디스플레이 오디오 패키지를 기본화해 상품의 경쟁력을 높였다. 모던 트림에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블루링크, 폰 프로젝트, 블루투스 핸드프리, 현대 카페이)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후방 모니터(조향 연동, 주행 중 후방 뷰) 등이 포함된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기본 적용해 상품성

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모던 트림 기본 사양에 ▲전방 충돌방지 보조(자전지 탑승자) ▲고속도로 주행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정차 및 재출발 기능 포함) 등 지능형 안전 기술과 ▲앞좌석 통풍시트 ▲현대 디지털 키 ▲스마트폰 무선충전 등 편의 사양을 더한 '모던 초이스' 트림을 신설했다.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는 고객 만족도가 높은 10.25인치 클러스터를 기본화했다. 또한 앞좌석과 뒷좌석의 각종 편의사양으로 구성된 패밀리 패키지를 시트플러스 1(운전석 전동시트 및 1열 통풍시트 등)과 시트플러스 2(동승석 전동시트 및 2열 열선시트 등)로 세분화하는 등 옵션 패키지를 고객 사용도가 높은 품목으로 재구성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모던, 모던 초이스,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선택 사양인 '실내 컬러 패키지'의 색상을 그레이에서 라이트 베이지로 변경해 상품 전반의 고급감을 강화했다. 개별소비세 3.5%를 적용한 코나 신형 가격은 ▲가솔린 2.0 2144만~2707만원 ▲1.6 터보 2213만~2775만원 ▲하이브리드 2558만~3056만원(세제 혜택 적용 후) ▲N 라인(가솔린 1.6 터보) 2815만~2873만원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2022년형 코나는 고객들의 선호 안전, 편의 사양을 대폭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했으며 고객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 제네시스 GV60, 스마트폰 갖고만 있어도 차문 열린다

### 현대차그룹, 초광대역 무선 통신(UWB) 기반의 비접촉식 디지털키2 서비스 제공

스마트폰을 옷주머니나 가방에 지니고 있어도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 수 있는 기능이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차종에서 제공된다. 현대차그룹은 초광대역 무선 통신(UWB·Ultra-Wide Band)을 적용한 이 같은 비접촉식 '디지털 키 2(Digital Key 2)'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비접촉식 디지털 키 2 기능은 '카 커넥티비티 컨소시엄(Car Connectivity Consortium)'의 기술 표준에 따라 개발됐다. 이 같은 디지털 키 기능이 삼성 및 애플에서 제조한 스마트폰과 동시에 호환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 중 세계 최초라는 게 현대차그룹의 설명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비접촉식 디지털 키 2 개발을 위해 초광대역 무선 통신 기술을 새로 적용했다. 서비스 적용 차량인 GV60 및 G90 차량의 개발 단계부터 UWB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하드웨어를 미리 반영하는 등 차량과 스마트폰 간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 선보이는 디지털 키 2 기능은 블루투스 및 근거리 무선 통신(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만 적용했던 기존 디지털 키와 비교해 거리 및 방향 인식 정확도가 높아져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키 2 옵션이 적용된 GV60 이용자는 무선(OTA·Over-the-Ai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문 핸들에 스마트폰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소지한 것

만으로도 차량에 출입하거나 잠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차량 내 NFC 안테나가 장착된 무선 충전기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지 않아도 시동을 걸 수 있다. 트렁크 뒤쪽 감지 영역으로 접근해 3초 이상 대기하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 스마트 트렁크 기능도 지원한다. 이 밖에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태로 차량에 가까이 접근하면 퍼드 램프가 점등되고 사이드 미러가 퍼지는 웰컴 라이트 점등 기능 등이 제공된다. 해당 서비스는 디지털 키 2 옵션을 적용한 제네시스 GV60을 시작으로 앞으로 G90 및 이후 출시될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차량에 선택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서비스가 적용되는 차량을 구입한 고객은 따로 하이테크센터(옛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디지털 키 2 기능을 자동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 이후 삼성 및 애플의 스마트폰 중 디지털 키 2를 지원하는 기종에 키를 신규 등록하면 업데이트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호환 가능한 스마트폰 기종은 제네시스 공식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샤오미, 화웨이 등이 제조한 스마트폰에서도 디지털 키 2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G90 차종의 경우 비접촉식 디지털 키 2



서비스 적용 시점을 추후 제네시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인 디지털 키 2 서비스를 통해 차량 사용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차량에 탑승하는 듯한 경험을 고객에게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 밀레, 식기세척기 G 5000 시리즈 4종 출시

### 빌트인 등 4종...압력 조절해 맞춤형으로

밀레(Miele)코리아는 식기세척기 신제품 G 5000 시리즈 4종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밀레 G 5000 식기세척기는 어디든 자유롭게 설치 가능한 프리스탠딩 모델 2종(G 5214 C SC BRWS, G 5214 C SC CLST)과 빌트인 모델 1종(G 5214 C SCi), 완전 빌트인 모델 1종(G 5264 C SCVi)으로 구성된다. 16인용 대용량으로 4인 가족 하루 설거지도 한번에 세척이 가능하다. 58분만에 세척해주는 퀵파워워시 프로그램과 익스프레스(Express) 단축 옵션을 활용해 다른 프로그램의 세척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밀레가 자체 개발한 상업용 등급의 MppW 펌프가 프로그램에 따라 분사 압력을 조절해 깨끗한 맞춤형 세척을 제공한다. 오토센서세척, 퀵파워워시, 섬세세척, 예코, 강력세척 등 총 5개의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다. 식기의 종류, 양, 오염도에 맞는 다양한 세척 방식을 설



정할 수 있다. 밀레 G 5000 식기세척기는 건조 기능에 아시아 디자인 바스켓을 적용해 밥공기와 국그릇 같은 오목한 식기들의 내부까지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밀레코리아가 19일 오전 11시 네이버 쇼핑라이브 특집 방송에서 G 5000 시리즈를 온라인 최초로 공개한다. 이슬비기자